

사랑방장 교재(3월)

가. 관찰질문

1) 우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온 목적은 무엇입니까(13절)?

- 자신의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서

2)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는 어느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까 (16-18절)?

-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간을 헐고 새로운 공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명사는 무엇일까요(17-19절)?

-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1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I 라는 1인칭 단수 주격이 모두 6차례 되풀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My 라는 1인칭 단수 소유격이 모두 5차례 나옵니다.

4) 부자는 큰 창고를 짓고 자신의 영혼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19절)

-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 나눔질문

1) 예수님은 자신의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고자 부탁한 그 사람의 명령을 왜 거절하셨을까요?

- 예수님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장의 역할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셨습

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산 상속 때문에 싸우는 형제들이라고 할 때,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누가 옳은 지 중재를 하신다고 해 봤자 두 형제들 가운데 누구의 탐욕이 더 옳은가 판정되는 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에 끼어들지 않으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본문에 부자가 사악한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없습니까. 그러나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것은 무엇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 그는 자기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누가 비옥한 땅을 주셨는지, 누가 하늘에 햇빛을 주셨는지, 누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3)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 혼자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스스로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의 삶을 보며 느낀 바는 무엇입니까?

-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기쁨 자기의 미래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부를 소유하였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4) 부자의 관심은 곧 찾아오게 될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오로지 현재에서 누릴 쾌락에만 있었습니다. 당신은 현재와 죽음 이후의 삶 중 어디에 관심이 더 있습니까?

- 부자는 죽음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재산을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둔 채, 지금 여기에서 누리게 될 쾌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평안히 쉬고, 배불리 먹고, 마음껏 마시고, 원 없이 향락을 누리며 사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 누구에게나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이미 정하여진 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삶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 적용질문

1) 유산 나눔의 근본적인 문제는 탐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탐심이란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리킵니다. 본절 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탐심”이란 “물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히 욕심을 부리게 되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탐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지 서로의 간증과 신앙적인 경험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 부자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고 재수가 좋아서 부유해졌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께로 왔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서로의 삶을 나누어 보세요.

3)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 밖에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넘어 밖에 있는 이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맙니다. 그래서 마침내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4) 예수님은 결론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비유를 마칩니다. 우리의 삶이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 부자는 자신에게는 부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에만 집착하는 삶은 어리석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하여 사용했다라면 그 물질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물질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소유를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